

# 인문학, 인문서 출판에 대한 단상

인문출판, '남이 뭐라든 갈 길 가는 태도' 필요

인문서 통해 미래 향해 '시대결핍' 얘기

다양한 문제 제기로 사회 지형, 새로운 물질 제시



글\_ 유재건그린비 출판사 대표

인문출판이 많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래서이겠지만 인문서가 많이 연성화되고 있다. 요즘 인문출판의 키워드는 '쉽게, 재미있게, 눈을 끌게'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책의 생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인문서의 본성을 망각하고 대중의 욕구를 사로잡기 위해 어설픈 대중을 쫓아간 탓이다. 원래 순발력과 지구력은 상치되기 마련이다. 쓰는 근육이 다른 탓이다. 이제 인문출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인문학이 뭐가? 인간의 존재와 삶을 묻는 학문 아닌가.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고 유구한 것처럼 인문학도 짧은 호흡의 순발력보다는 긴 호흡의 지구력이 필요한 출판 분야다. 시대를 넘어 살아남은 책들은 대부분 인문학 책들이다. 인문서는 늘 시대를 앞서가면서 시대의 결핍을 얘기하는 미래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문학은 독자에 맞춰 더욱 연성화될 것이 아니라 더욱 강성화되어야 한다. 시대의 결핍과 매출의 결핍을 혼동해선 안 된다.

지금 인문서 출판 환경은 나쁜가,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출판하는 주체가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진중문고'를 아시는지? 맞다. 국방부에서 1년에 네 다섯 종의 책을 선정, 구입해서 군대내 도서관과 내무반에 비치하는 도서다. 종당 1만부 정도를 구입하는데, 대개 가벼운 책들이 선정되게 마련이어서 딱딱한 인문사회과학서를 내는 우리 출판사로서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8월, 우리 출판사의 《화폐, 마법의 사중주》가 딱하니 진중문고에 선정되었다.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다.

이 책은 자본주의하에서 화폐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신(神)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계보학적 방법으로 추적한, 심하게 말하면 반(反)자본주의적인 성격의 책이다. 설마 책 제목에 화

폐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부자학 관련서나 재테크 서적으로 착각해서 잘못 선정된 건 아닐까? 세상만사, 편견이 깊으면 늘 이렇게 뼈 딱하게 보는 법이다. 어쨌거나 올해부터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 400종을 선정해서 600부 정도씩을 사준다고 하니, 인문출판하는 나로서는 출판할 맛이 난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지난 7월 초 우리 출판사에서는 《한미 FTA국민보고서》라는 책을 냈다. 책을 내고 20일쯤 지난 7월 30일, 출간 당시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 한날한시에 사설과 컬럼, 특집 기사를 통해 '친북' 운운하면서 이 책의 반국가성을 큼지막하게 다뤘다. 독재정권 시절의 이념공세와 출판탄압이 비극이었다면, 지금의 뜬금있는(?) 이 이념공세는 나를 슬프게 하는 희극이다. 이 퇴행성과 폐쇄성이라니. 이래서는 인문출판할 맛이 나질 않는다. 인문학은 편향된 만큼 좁아지고, 그에 비례하여 독자를 설득·수용할 수 있는 출판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인문정신은 시대를 반영한다. 세상도 변하고 독자도 변하고 출판환경도 변해간다. 그 변화와 함께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앞에는 열려 있다. 지식이 정보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책은, 인문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다시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출판도 그렇지만 특히 인문출판은 범람하는 물과 같아야 한다. 다양한 문제 제기과 상상력으로 기존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사회의 지형에 새로운 물길을 내야 한다. 인문출판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든, 인문출판에 뜻을 둔 이라면 마르크스가 《자본》 서문에서 한 다음의 말을 한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갈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